

선교찬양으로 5사단 훈련병을 위한 진중세례식



창천의 하늘 아래 뜨거운 햇살을 받으며, 녹음이 짙게 드리우고 있는 국토의 최전방에서 가까머리를 하고 겨우 5주째 훈련을 받고 있는 훈련병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거룩하신 뜻과 계명을 준행하기로 세례자 서약을 하였다. 주님의교회 군경선교팀과 문화예술분과위원회 미쇼데이 (Missio Dei) 선교찬

양대 대원 54명이 5월19일(토) 5사단 열쇠부대 신병교육대대 상송교회에서 167명의 훈련병을 위한 진중세례식을 후원하고 세례를 받은 훈련병들을 축복하였다. 배현성 목사는 ‘세월을 아껴라.’라는 제목으로 “젊어서의 황금시간 절대로 놓치지 말고 앞날을 위한 귀중한 세월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5사단은 휴전선 최전방에 위치하여 남방· 북방한계선과 비무장지대(DMZ)를 바로 앞에 두고 있기에, 평화로운 산천의 외양에도 불구하고, 60년을 이어온 분단의 현실로 긴장감이 팽팽하게 흐르고 있었다. 세례가 진행되는 동안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훈련병 형제들을 위해, 우리는 그들의 삶이 주님의 진리 안에서 온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였다. 여성대원들은 얼굴에 맺힌 물방울을 수건으로 닦아주며 마치 군인 간아들을 대하듯 그들을 격려하며 안아서 기도하던 그 모습은 우리 모두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였다. 마음으로 기도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최병욱 파택안수집사>

사랑의 여백과 기쁨의 여운으로

_미자립교회 자원봉사를 다녀와서



사랑의 여백과 기쁨의 여운(餘韻)이...우리들을 자연스럽게 하는. 그리고 화려한 봉사 뒤의 겸손한 그림자.. 5월 18일과 19일 전라남도 장성 화산교회에 농어촌선교팀에서 실시한 농어촌미자립교회 자원봉사에 호스피스팀과 이미용팀 그리고 사진팀에서 합동으로 봉사를 다녀왔다.

50여명의 농어촌 어르신들에게 이미용팀에서 파마와 컷트와 머리염색과 힘든 농사를 하며 부

르터진 발을 호스피스팀에서 아로마 테라피와 발맞사지를 해드리며 사진팀에서는 길이 남을 멋진 장수사진을 찍어드리는 순간 그분들의 얼굴에서는 말을 잊지 못하는 고마움이 넘쳐났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달란트와 기쁨의 은사 속에 그분들에게 행하여준 작은 행함으로 비록 몸은 힘들었지만 그들이 즐거워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들은 작은 봉사자의 즐거움을 느껴보았다. 함께한 봉사자들 모두는 인생에 의미와 가치가 부여하는 참 뜻깊은 하루를 안고 돌아왔다. 봉사를 통해 마음속에 평화를 담고 마치 내 자신이 위대한 일이라도 한 것처럼, 기쁘고 뿌듯함을 가득 담고 온다하며 많은 봉사현장에 늘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을 가진다고 한다. <신형섭 기자>

* 성경 _ 한자로 풀어보기

五旬節(오순절) 聖靈(성령)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사도행전 2:1-2)

五旬節(오순절) 聖靈(성령)의 文字的(문자적) 意味(의미)

★五(다섯 오) : 하늘과 땅 사이를 뜻하는 二(두 이)의 가운데에 완전함을 뜻하는 十(열 십)의 변형체를 넣어 “하늘과 땅 사이에 완전하게 음양의 조화를 이루는 숫자가 다섯이다.”라는 글자를 만들었다.

★旬(열흘 순) : 공평함의 뜻을 지닌 勻(가지런할 윤)의 획 줄임 글자(乚)에 날짜를 뜻하는 日(날 일)을 결합시키니 “한 달을 공평하게 셋으로 나눈 날짜의 묶음이 열흘이다.”라는 의미가 되었다.

★節(마디 절) : 竹(대 죽. 대죽 머리)에 나아가다는 의미의 卽(곧 죽)을 결합시켜 “대나무가 자라 나아갈 때 생기는 것이 마디이다.”라는 의미를 만들었는데 절기. 예절. 절개. 풍류. 절약의 뜻도 있다.

★聖(성인 성) : 듣는다는 의미가 있는 耳(귀 이)와 보(나타날 정)이 합하여 “귀로 남의 말을 잘 듣고 말과 행동을 바르게 나타내 보이는 자가 성인이다.”라는 의미가 되었는데 나중에 거룩하다는 의미도 추가되었다.

★靈(신령 령) : 靈(비율 령)에 祈雨祭(기우제)의 주관자인 巫(무당 무)를 결합시켜 “비오기를 구하며 무당의 기원하는 대상이 신령이다.”라는 뜻으로 온갖 土俗神(토속 신)을 의미 하였으나 기독교에서는 사람의 靈(영)이나 하나님의 거룩한 靈(영) 또는 마귀의 악한 靈(영)등으로 구분하여 쓰고 있다.

< 노대홍 기자 _ rdhteacher@hanmail.net >

교회소식 이모저모

장애인 주일 사랑나무 밤벨 연주



오월의 하늘 가득한 향기 사랑나무 그 꽃밭에 머물고 싶어라. 우리들 마음속에 깊숙이 심겨져 있어 떠날 줄 모르는 사랑나무 향기를 가까이서 숨차도록 마셔본

다. 사랑은 서로 마주 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같은 방향을 보는 것이다. 평화롭고, 따스롭고, 한기롭고 햇살 맑은 찬란한 5월의 셋째 주 5월 20일 장애인 주일을 맞아 사랑나무 팀에서는 주일 3부 예배에서 밤벨 특송을 하였다. 잘 듣지도 못하고 잘 말하지도 못하고 자기 의지대로 행동을 못하는 사랑나무들 많은 교우님들 앞에 앉아 아이들 뒤에서 두 손을 꼭 잡고 지휘자 손에 따라 움직이는 순간 피아노 소리가 흘러나오며 우리들 진정 한그루의 사랑나무가 된다. “문리버”와 “주에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를 연주하며 ‘우리들 편견이 없는 세상을 살아가며 조금만 눈을 돌리면 세상에는 얼마나 아름다운 것 많을까? 라는 생각을 해본다. 무슨 빛이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마냥 기쁘기만 하는 이 시간들 보듬고 사랑하는 마음 솟사탕 같은 사랑,, 같은 보라색 옷을 입고 같은 공동체로 수고하며 예배 후 매주 연습을 같이한 사랑나무 팀 모두에게 큰 미소를 드린다. <신형섭 기자>

권사회 5월 월례회

_“우리들 마음은 무지개빛이다”



날이 흐려 나뭇잎들은 반짝거리지 않아도 우리들 마음은 내일로 달려가는 무지개 빛이다. 세월은 분명히 변하고 흘러가지만 저희들 주님을 향한 우리들 마음

은 항상 변하지 않고 우리들 곁에 있다. 2012년 5월 16일(수) 권사회 5월 월례회에서 박원호 담임목사는 요엘 2장의 말씀을 전해주었다. “그동안 큰 행사들 예배드라마와 무지개 잔치, 12단계종강과 성지 순례를 무시하 마침에 권사님들의 기도와 많은 수고에 감사드렸다. 우리들 마음의 속사람이 변화되고 의에 주리고 목마름 해결해주시기를 행사가 진행될 때마다 마음이 바로 잡혀 새마음으로 하나님의 역사 이루기를 기도드리며 권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복음자이며 사명자의 역할을 하며 땅끝까지 복음 전파하는 일에 힘써 주기를 바란다. “고 했다. 예배를 드린 후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한 기도와 병중에 있는 권사들을 위한 기도를 드리며 “권사로서의 사명”을 더욱 힘써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만 하는 일꾼이 되기를 바랐다. <신형섭 기자>

|오늘의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_ 행 2:17

통 권 제 303호
발행인 담임목사 박원호
편집인 미디어위원장 박대길
발행처 주님의교회 홍보출판부
발행일 2012년 5월 27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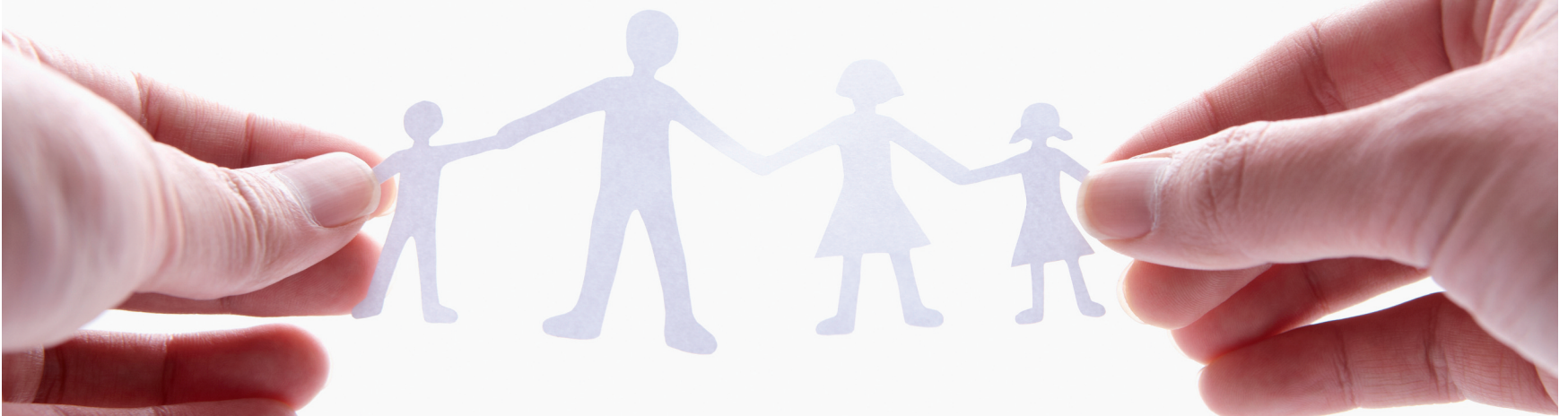
함글함글

www.pcltv.org

TEL. 416.5181~2 FAX. 416.5180

우리는 지금 행복한가?

_가정의달맞아 살펴본 신앙인의 삶



야구장에나 가볼까, 시름없는 이 나이

초여름 주일, 청명한 햇빛이 눈부시다. 3부 예배를 방금 마치고 나온 고민숙(가명, 35) 집사는 강한 햇살에 눈을 찌푸리며 교회 로비에서 잠깐 망설인다. 주말인데도 어제 늦게까지 야근을 했던 터라 몹시 피곤하지만, 이 좋은 날, 자취하는 원룸 빈 방에 들어가고 싶지는 않다. 지하철만 타면 입에 맞는 엄마표 김치찌개를 먹을 수 있는 집에 갈 수 있지만, 보나마나 왜 시집갈 궁리 안 하느냐는 지청구를 들을 게 뻔하다. 친구들은 모두 애 돌보고 신랑 챙기느라 바쁘니 연락하기도 미안하다. 올해부터, 스스로 더는 청년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청년부 활동에도 참여하지 않고 있다. 갈 곳이 없다. 외롭다. 건너편 야구장에서 요란한 함성 소리가 들려온다. 아마 어떤 선수가 역전 홈런이라도 날렸나 보다. 야구장에나 가 볼까.

직장을 그만 두어야 하나, 이젠 다투기 싫다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는, 동갑내기 정다운, 나도영(가명, 38) 집사 부부는 차에 올라타자마자 또 다투었다. 교회 주차장에서 초여름 햇볕에 달구어진 실내 온도 때문만은 아니다. “오늘 꼭 시택에 가야해? 요즘 애들 때문에 힘든데, 다음 주에 가면 안 돼?”라는 아내의 말에, “겨우 한 달에 두 번 가는 거, 꼭 토를 단다.”고 남편이 대꾸했던 것이다. 점점 언성이 높아지자, 눈치를 보면서 장난을 치고 있던 여섯 살 쌍둥이 아들들은 삔삔 짙은 땀을 흘리면서 뒷좌석에서 잠이 들었다. “직장 다니면서 쌍둥이 애들 뒷바라지하고 살림하는 게 쉬운 줄 알아? 당신이 살림 도와주는 게 뭐 있어?”라고 말하던 나도영 집사는 끝내 눈물을

흘리고 만다. 이참에 회사를 그만 둘까, 생각해본다. 하지만, 전세 대출도 계속 갚아야 하고, 지금까지 쌓아온 디자이너의 경력도 아깝다. 몇 년 쉬고 나면 후배들이 그 자리를 꿰어 칠 것이다.

불편한 진실, 버림받은 가족

이해남(가명, 49)성도는 요즘 마음이 불편하다. 부인 고지순(가명, 44)권사는 아직도 집에 오지 않는다. 주말 오후 여섯 시인데, 부엌엔 아침부터 쌓인 설거지가, 욕실엔 빨래가 산더미다. 중3 딸은 으레 그러려니 하며 피자를 시켜 먹자고 조르고 있고, 노지막이 나간 고1 아들 녀석은 밤늦게나 들어올 것이다. 교회 일에 열심인 것은 좋은데, 집안 살림은 이렇게 나 몰라라 해도 되는 것인지 모를 일이다. 작년만 해도 그렇지 않았었다. 주말에 잠깐 교회에 출석하는 정도였고, 살림 뿐 아니라 홀로 된 노모도 잘 모셨다. 그게 고마워서 교회에 나가자는 부인의 오랜 소원을 받아 들여, 남편도 교회에 다니기로 했다. 지난여름 부인이 기도원에서 성령 체험을 한 뒤부터, 사람이 바뀌었다. 주일 내내 새벽 예배부터 밤늦게까지, 이런 저런 사역과 봉사와 전도에 쉬는 날이 없다. 부인과 대화한 지 오래, 경기 침체로 사업도 접어치울까 고민인데, 이제 집에서는 좀 편안히 쉬고 싶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 성적은 왜 이 모양인가

“전화 왔쎄요~ 문자인데 속았지?” 새벽학원을 마치고 학교로 이동하는 학원 버스 안에서, 이동남(가명, 17) 군은 핸드폰을 열어 본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빌4:13)” 교회 고등부 담임교사는 매일 아침 성경 말씀을 문자로 보내주신다. 이군도 이 말씀을 믿고 싶다. 교수 부부인 아빠와 엄마는 당연히 이군도 본인들이 나온 명문 대학에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지난 3월 모의고사 결과를 보고, 엄마가 말했다. “주말반 기숙학원 등록하자”. 고등부 선생님께는 죄송하지만 그때부터 교회에 안 갔다. 엄마 아빠한테 큰 불만은 없다. 매일 새벽예배를 드리는 두 분을 보면 오히려 존경스럽기까지 하다. 아마 수능 날까지, 아니 합격 발표를 들을 때까지 새벽 예배에 계속 출석할 것이다. 아, 왜 나는 두 분을 닮지 않았을까! 이군은 슬슬 놀면서 명문대를 나오고 유학까지 간 형이 부럽다. 솔직히 말하면, 자신 없다. 기출이라도 할까.

가정의달을 맞아 점검해 본 믿음의 가정

주님 안에서 우리는 은혜와 위로를 받고, 평화를 얻는다. 하지만, 믿음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기는 쉽지 않다. 가정은 교회의 가장 작은 단위임에도, 믿음의 가정을 살펴보면, 뜻밖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우리는 모두 신앙인이지만, 또한 생활인으로서 살고 있다. 우리는 과연 행복한가? 행복하지 않다면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 가정의 달을 맞아, 주님의교회 여러 성도들을 만나 인터뷰하면서, 생각보다 많은 가정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믿음 안에서, 가정 구성원 서로를 믿고, 함께 대화를 통해 극복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때다.

< 편집부 >

주간 목회력

<2012 전교인 무지개잔치 사진전 >
-5.27(주일) / 1층 복도 양쪽 게시판
<새가족 양육환영식 >
-5.27(주일) 오후3시 / 지하식당

<제9기 싱글매칭학교 >
-6.9~6.30(매주 토) / 오후1시
<킹덤비전영어캠프 봉사자 모집 >
-보조교사, 간호사, 사무보조, 주방, 영상

프로그램 진행등 (영어실력과 무관)
<25사단 진중세례 지원 >
-6.2(토)오후2시 / 사단신교대

준비된 결혼이 아름답다 _ 결혼예비학교

* 결혼예비학교를 담당하시는 공광승 목사님과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_ 편집자주

배우자 기도를 하던 한 형제가 있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오랫동안 기도하던 중 정작 자신은 미래의 배우자를 위해 아무런 준비도 안하고 있었음을 깨닫고, 자신이 먼저 좋은 배우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 내용을 바꾸게 되었다는 고백을 했다.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부부였음을 생각할 때, 사람 간에 형성된 최초의 인간관계는 부부이다. 역사가 가장 오래된 관계지만 여전히 어렵다. 일반적으로

가정을 이루는 기본 단위인 부부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할 때, 가정이 속한 교회 또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 결혼을 준비한다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배우자를 물색하고 혼수를 준비하고 식장을 잡는 등의 일이지만 실제로는 새로운 사람과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방법적인 문제를 대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결혼 생활 전반에 걸친 계획이 필요한데, 우리는 이런 준비에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 경향이 있다.

요즘 청년들은 직장과 경력을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쏟고 공부와 투자를 하지만, 결혼에 대해서는 적당한 사람만 만나면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 상대적으로 준비를 소홀히 한다. 결혼에 대해 덜 준비된 계획과 마음가짐은 결혼 후의 실생활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결혼을 지속하기 어렵게 만든다. 결혼 생활을 순조롭게 하기 위해서는 참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한데 요즘 청년들에게는 결혼 생활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힘이 다소 약하다. 물질적인 부족함이 없는 성장과정과 경쟁적인 사회 기저에 힘입어, 어려움이나 불편함을 참기 힘들어하고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발휘하기 주저한다. 이제는 부모세대 또한 자신의 자녀가 부부생활에서도 이기적이 되도록 부추긴다. 자녀 양육은 부부관계를 견고히 하고 가정의 기둥을 세우는 중요한 일인데도 맞벌이 등의 이유로 자녀를 조부모나 시설에 맡기면서 자연스럽게 부모로서의 역할마저 위탁하게 되고, 부부간, 자녀간의 병리현상까지 초래한다. 한마디로 요즘 우리 사회의 풍토가 가정의 붕괴를 손쉽게 하고 있다. 기독교인도 그러한 세태를 생각 없이 따라간다면 교회 공동체의 구성도 흔들리게 된다.

그렇다면 부부 관계를 잘 세워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앞만 보고 속도



를 내어 달리다보면 사고가 쉬이 날 수 있으므로 주변을 둘러볼 필요가 있다. 부부 관계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른 부부를 보고 배우는 것이 가장 좋은 공부라 소개한다. 나이를 먹어가면서 세대별로 만나는 하나님이 있다. 교회와 겨자씨 안에서 교제를 통해 다른 부부들과 먼저 겪어본 세대의 모습은 나에게 간접적인 경험의 기회를 준다. 그들의 좋은 모습 혹은 그렇지 못한 모습

은 앞서간 발자취가 되고, 나의 경우에 비추어 돌아보고 점검해 볼 수 있다. 성경적 결혼관의 관점에서 바람직한 결혼 생활은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이라 하겠다. 매일의 삶 속에서 부부가 말씀 읽기와 나누는 것에 힘쓰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허락하신 일을 기도하며 찾아간다면 관계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

우리 교회는 결혼예비학교를 통해 예비부부와 새내기 부부들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준비하도록 도와주고 있다. 이곳에서는 선배부부들의 시행착오를 들어보고 부부의 성, 건강, 재정에 대해 배우며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 건강한 결혼을 준비하도록 한다. 한 수료자는 특별히 부부 세족식을 통해 배우자에 대한 섬김과 사랑을 다시 각인하게 되었다고 한다. 현재 제7기가 진행 중인데, 많은 예비부부들이 이곳을 통해 신앙인으로서 결혼의 의미를 생각해보고 귀한 가정의 반석을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란다. <김주현 기자>



부부 ♥ 커뮤니케이션 _ 2030 부부세미나

지난 5월 19일 20-30 젊은 부부들을 위한 ‘부부 커뮤니케이션’ (한성령교려대 심리학과)이라는 특별한 세미나가 있었다. ‘하나님께서 주례하신 아담과 이브의 가정은 아주 불행한 가정이었다!’ 라는 재미있는 화두로 시작된 강의는 30여 컷 60여 명의 부부들이 모여 약 한 시간가량 진행되었다. 특히 한교수는 부부 갈등의 해결원인으로 ‘심정을 헤아려주는 대화’ (일명 심장대화)의 중요성을 꼽았다. 강의 중간중간 일대에서 해온 잘못된 대화의 예시를 들어주어 곳곳에서 공감어린 웃음이 터져나왔다. 부부는 서로에 대해 많은것을 알고 있지만 서로의 마음을 알고 있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었다. 특히 심장대화를 가장 잘



하신 분으로 예수님의 예를 드셨다. 예수님과 삭개오의 대화를 통해 예수님께서 당시 왕따와 같았던 삭개

오의 마음을 어떻게 만나주시고 삭개오를 즐거워하게 만들었으며 삭개오가 마음을 바꾸므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심장대화의 진리를 재미있고도 명쾌하게 알려주었다. 한 시간 남짓의 강의시간이 너무 짧아 아쉬웠고 참석 부부간 이야기를 더 할 수 있는 기회가 이어졌으면 더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남았다. 강의를 들은 부부라면, 어느날 배우자가 ‘직장을 떼려치운다’는 말도 안되는 말을 건넬 때 “당신 왜 그래? 그럼 우린 뭐 먹고살아, 정신이 있는거야, 없는거야!”라며 진실(?)을 일깨워주는 선생님이 되지 말고 ‘아, 내 배우자가 요새 힘들었구나..’ 하는 마음으로 대화를 시작해야 된다는 것~ <박민지 기자>

먼저 편지를 쓰기에 앞서 예희가 우리 곁에 살아 숨 쉬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작은 생명을 살려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고 싶구나.

예희야, 엄마는 예희의 이름만 불러도 자꾸만 눈물이 흐르네... 다만 이것이 슬픔과 절망의 눈물이 아닌 감사와 기쁨의 눈물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하단다. 분만 중의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쳐 스스로 호흡하는 것, 소리 내어 우는 것, 빨고 삼키는 것, 몸을 움직이는 것... 다른 아기들은 태어나서 당연한 것처럼 하게 되는 모든 것 중에

양하게 하시고 영광 돌리게 하시려는 뜻이라는 것을 아빠를 통해, 그리고 주위의 많은 분들의 기도를 통해 엄마에게 깨닫게 하시며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해 주셨단다.

아빠 엄마는 예희 네가 태어난지 2주만에 스스로 호흡하기 시작하고, 한달만에 처음으로 소리 내어 울고, 한 달 반만에 코로 연결된 튜브로 먹던 우유를 온전히 입으로 먹기 시작한 이 모든 것들이 그저 감사하기만 하단다. 당연한 줄로만 알았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중하고 귀한 것이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가슴 사리게 큰지 알게 하시는구나. 또한 매일 조금씩 회복하는 예희 너를 통하여 참된 감사가 무엇인지 조금씩 깨달으며 날마다 감사의 고백을 하게 하신단다. 예희 너를 데리고 병원을 자주 가는 요즈음은 몸과 마음이 아픈 아이들이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를 보게 하시며, 그 아이들과 부모의 상한 마음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예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수많은 분들의 그 사랑과 기도가 얼마나 값지고 귀한지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란다.

예희야, 하나님께서는 예희에게 아주 특별한 시계를 선물 해 주셨단다. 다른 아기들과는 다르게 조금 늦게 가는 시계이지만 그 시계에 맞춰 예희는 하나 하나 해나갈 수 있을 거야. 비록 아직은 엄마랑 눈 마주치거나 웃는 것이 되지 않고 몸의 움직임, 소리 내어 우는 것, 먹는 것이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지금까지 예희가 잘 이겨내 왔듯이 앞으로 잘 해나리라고 아빠 엄마는 믿는단다. 예희가 앞으로 커가면서 만날지도 모르는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그때마다 특별한 시계를 선물 해 주신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드리며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쁨으로 바라보았으면 한다. 그런 예희의 모습을 보며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감사를 깨닫는다면 그것보다 더 소중한 일은 없을 거란다. 아빠 엄마도 예희와 함께 매일 성숙해 가며 하나님 앞에서 허락하신 귀한 생명, 우리 예희를 사랑으로 잘 지켜나가도록 약속할게.

그러니 아가야, 힘내렴. 사랑하고 또 사랑한 다. <예희엄마_임사라>

땅끝 편지_06

사랑하는 딸 예희에게

어느 것 하나도 하지 못한 채 갖가지 호스를 몸에 꽂고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힘없이 축 처져 누워 있는 너를 보며 엄마는 슬픔을 감출 수가 없었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지만 그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를 처음으로 깨달았단다.

한 달이 넘는 시간동안 치료실 복도 창 밖에서 너를 만지지도, 안아주지도 못하고 젖조차도 물리지도 못한 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엄마 자신을 자책하며 슬퍼할 때 아빠가 엄마에게 이렇게 이야기 해 주었던다. 예희의 아픔은 그 누구의 탓도 아니며 자책하고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니라고 말아야...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아빠의 기도 응답이라고 말씀하셨단다. 예희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우리가 부르던 ‘기쁨이’라는 태명을 부르며 매일 밤마다 아빠가 엄마 배 위에 손을 올리고 “하나님. 기쁨이가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시고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의 위로와 기쁨이 되는 아이가 되게해주세요.”라고 기도했더니 그 응답으로 지금과 같이 예희가 조금씩 조금씩 회복되어지며 많은 사람들이 기뻐한다고 말아야. 또 한 주님의 때에 우리 예희를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고쳐나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인해 하나님을 찬

2012년 함글함글에서는 “땅끝까지,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표어에 기초하여 땅끝원고를 받고 있습니다. 서로의 관계를 고백하고 치유하며 가르치고 배우는 내용이면 무엇이든 가능합니다. hamletter@hanmail.net으로 보내주시면 편집회의를 거쳐 실어드리겠습니다. _편집자

저는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에서 2남 1녀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 가문에 가장 먼저 예수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신 할머니의 신앙을 이어받아 이문동교회에서 3대째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할머니께서는 제가 태어난 해에, 아버님은 1999년에, 어머님은 2009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생각보다 일찍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자녀와 손자손녀들에게 더 효도를 받으시고 천국 가셨으면 좋으셨을텐데 늘 아쉬움이 있습니다. 성도여러분 살아계신 부모님께 효를 다하시기 권해드립니다. 돌아가시고나니 후회가 되네요!

저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은 신학대학을 들어가게 된 이유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고등학교를 졸업할 즈음에 교통사고를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교통사고는 저에게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게되는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되었습니다. 교통사고 전에는 이 세상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섬광같이 밀려왔던 깨달음은 내가 죽어도 이 세상이 너무도 자연스럽게 아니 ‘공광승’이라는 존재를 무시한 채 전혀 천연덕스럽게 흘러간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세상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구나 하나님이시구나!’를 온몸으로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간절히 드렸던 기도를 아직도 잊을 수 없는데요. “하나님 저는 아직 어리고, 결혼도 안했고, 큰 잘못도 없는데 살려주세요. 다시 한번 기회주시면 이제는 주인되신 하나님을 위해서만 살렵니다. 살려주세요” 서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 저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을뿐 아니라 더 좋은

건강을 주셨습니다. 87년 1월 14일 교통사고 이후 지

부르심의 길에 서서_05

‘이 세상의 주인공은 하나님’ _공광승 목사

금까지 저는 덤으로 사는 인생을 살고 있는 셈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이제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더라도 그 시간까지 더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부르심에 갈 수 있습니다.

저에게 사역에 대한 부르심은 신학대학시절부터 주요관심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목회자들이 많은시대에 나를 왜 목회자로 인도하시고 부르셨을까?’였습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요청하시고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이렇게 이어지는 고민과 만남 그리고 배움이 쌓아져서 하나님보시기에 심히 좋은 세상을 만드는 일에 힘쓰라는 것으로 마음에 담게되었구요. 결국 총체적인 창조질서회복을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가정이 회복되어야함에 결론을 내리면서 가정사역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교회에서 청년사역을 감당하면서 저에게 주신 은사는 결혼시키는 은사입니다. 청년들이 “목사님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되요”라는 피드백을 들으면서 기도제목을 너머 거룩한 부담이 되었습니다. 기도중에 주시는 하나님께서 “결혼을 위해 기도하는 청년들을 모으라”는 감동을 주셔서 ‘싱글매칭학교’라는 사역이 태동하게 되었고 지금은 20쌍이 참여하는 한 가수에 매칭율이 50%를 넘고 있습니다. 모두 하나님이 하셨기에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제가 주님의교회에서 매주 수요일 오전 사역으로 성경통독을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는 하나님과 성도들을 만나게하는 매칭사역자라 생각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목회자로서 ‘어떻게하면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날수있을까?’ 질문의 결론은 오직 성경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신 성도님들만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들어보십시오

성경을 하나님의말씀으로 받아 소리내서 읽어보십시오

성경을 하나님의말씀으로 받아 써보십시오

성경을 하나님의말씀으로 받아 암송해보십시오

성경을 하나님의말씀으로 받아 손과발로 행해보십시오 놀라운일들이 일어납니다. 쏘! 다 아는 비밀입니다.